

고흥 가내포봉수, 관방유적 가치 확인

군, 시굴조사...조선시대 중기 운영
요망대·방호벽 확인 출토 유물 조사
“고흥만의 통신시설망 규명 힘써야”

고흥군이 도화면 봉화산 정상에 위치한 가내포봉수의 운영 시기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인했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고흥 가내포봉수’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고흥 가내포봉수’는 고지도에는 표시돼 있지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신증양양지(1758년) 등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확인된다.

고흥군 봉수망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된 봉수망이라는 내용이 조선 중기 지리지에 수록돼 있다. 가내포봉수는 16세기(1502년) 설봉돼 18세기(1758년 이전)에 폐봉됐다. 봉수 신호는 서쪽의 도화면 가화봉수, 동쪽의 동일면 소포봉수로 연결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연산군일기(1497년)와 승정원일기(1636년)를 참고해 봉수를 만든 이유와 운영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13~15세기 자주 출몰했던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풍양면 울현보성과 봉수의 하나인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펴거나 신호를 보내는 요망유적 6개소가 함께 만들어졌다.



가내포봉수 연대

조사단은 문헌 기록을 토대로 가내포봉수가 6개소 중 하나였으며, 고흥반도 남쪽 해안을 감시하는 요망유적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내포봉수에서는 요망대와 방호벽이 확인됐다. 요망대는 방형의 평면 형태와 ‘ㅁ’ 자의 단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요망대는 자연 암반 위에 축물을 세우기 위해 지대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석재를 쌓는 방식으로 축조됐다. 축조기법은 조선시대 전기 축성법으로, 도화면 가화봉수 및 망산봉수와 유사하다.

출토 유물로는 요망대 내에서 분청사기와 백자, 용기편 등이 확인됐다.

이곳에서 확인된 분청사기는 담방 기법이 확인됐다. 이는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법으로 봉수 설립 시기를 간접



가내포봉수 방호벽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내포봉수 조사를 맡은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최인선 조사단장은 “고흥군 내 27개소 봉수유적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 조선시대 고흥만의 통신시설망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와 홍성우 경상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은 “가내포봉수를 포함한 고흥의 봉수·요망유적들은 타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흥만의 봉수 방어 체계를 보여준다”며 “관련 문헌과 민속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방유적 연구와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알리고, 향후 학술연구를 통해 학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진종연 기자

장흥 친환경 무산김, 유럽 수출 확대 방안 모색

조미김 가공 업체들과 간담회
인지도 제고 전략 수립 등 논의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조미김 가공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무산김의 유럽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는 장흥 무산김의 유럽 수출 확대 방안과 가공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흥 친환경 무산김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 수립과 홍보 등도 회의안건에 포함됐다.

장흥군은 현재 해조류에 대해 관심이 낮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ASC-MSC 인증을 취득한 친환경 무산김을 전략 상품으로 선보이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장흥군은 유럽 시장의 진출과 장흥군의 문화적 가치 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사업과 연계해 관내 4개 김 수출 업체가 최근 스페



장흥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조미김 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무산김의 유럽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흥군 제공

인 바르셀로나를 방문, 씨푸드 글로벌 엑스포 전시회에 참가해 수출 상담과 현지 시장조사를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친환경 무산김이

전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판로 개척을 추진하겠다”며 “장흥 친환경 무산김이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수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순천만잡월드 새단장...31일 정식 개관

첨단기술 활용 직업 체험

순천시는 어린이 직업 체험관인 순천만잡월드를 새롭게 단장해 27일부터 3일간 시범 운영하고, 31일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순천만잡월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체험 콘텐츠와 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체험관은 △AI센터, 로봇연구소, 드론개발센터 등 미래 유망 산업을 반영한 ‘미래기술 체험관’ △K-POP랜드, 뷰티숍, 애니클럽, 푸드 스튜디오 등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 창의 체험관’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사회 안전 관련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공공안전체험관’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체험 대상은 5~10세 어린이다. 아이들이 실제 직업 세계를 높이쳐며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탐색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순천시는 정식 개관에 앞서 체험 기회를 넓히고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3단계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27~29일 ‘잡월드 오픈런’ 시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체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자 1인당 5000원의 특별 요금으로 운영된다.

정식 개관일인 31일에는 가족 단위 체험객을 위한 ‘잡월드 3GO’ 특별 이벤트를 연다. ‘3GO’는 ‘즐기GO, 만들GO, 꿈꾸GO’를 주제로 미술소, 별문소, 캐릭터 퍼레이드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더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순천=박경식 기자



여수시가 최근 공개 추첨을 통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25명을 최종 선정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25명 선정

여수시는 최근 공개 추첨을 통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2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 체결한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없이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다.

모집 인원은 △우선공급 1명 △신혼부부 3명 △전입예정자 5명 △여수시민 16명 등 25명이며 총 459명이 신청해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여수시민 분야

는 24.8대 1로 분야별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여수시는 추첨 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관과 감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직접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호수 추첨을 비롯한 예비자 순번 추첨도 당사자가 직접 참여했다. 선정된 입주자는 오는 30일 설명회 이후 6월 20일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을 통해 지난해 주택 17호, 올해 25호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총 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군 ‘스마일600’ 인사 캠페인 전개

보성군이 군민 모두가 따뜻한 인사와 미소로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마일600,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캠페인을 추진한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인사 문화를 일상에 정착시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보성군은 인사는 예절을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쌓는 시작점으로 인식, 행정 전반에 걸쳐 인

사 문화를 생활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인사 캠페인 실천 독려를 위해 전 읍면 주요 지점에 캠페인 현수막 게시, ‘스마일600’ 로고가 담긴 포스터 및 스티커 배부, 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다.

‘보성600’은 2020년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됐다. 소통, 문화, 복지, 클린, 안심, 산림, 건강, 스마일 등 지역 특화 사업으로 행정에 적용되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여천제일교회, 취약계층 이불빨래 봉사

여천제일교회가 최근 여천동 저소득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19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이불 빨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회 소속 봉사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겨울이불을 수거했다. 전문 세탁소와 협력해 깨끗하게 세탁된 이불을 다시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천제일교회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이지만 스스로 이불을 세탁하거나 세탁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이불빨래 봉사가 그들의 삶에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담양군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봄김치’ 전달

담양군여성자원봉사회가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봄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45명이 참여, 열무 물김치를 담가 관내 800세대에 전달했다. 회원들은 열무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다. 담양군여성자원봉사회는 매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말벗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례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정성을 담은 음식이 이웃들의 여름 건강에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남동발전 여수본부, 재난 행동요령 캠페인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최근 진남시장 일대에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캠페인은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와 협력사, 여수시, 여수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시장 일대에서 시민과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리플렛, 팸플 등을 활용해 태풍, 폭염 및 화재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화재에 대비해 119신고 절차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피해 신속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모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